

## 드브레 프랑스 하원의장 주최 리셉션 연설

존경하는 장루이 드브레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의장님의 각별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흘간의 프랑스 방문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이 프랑스를 깊이 이해하고, 양국간 우호협력을 더욱 굳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각계 지도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프랑스가 인류 역사에 남긴 유산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두 가지 위대한 업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18세기 프랑스 대혁명과 20세기 유럽통합입니다. 자유·평등·박애의 혁명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밝힌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통합 역시 21세기 세계 질서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장 모네를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의 통찰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는 '하나의 유럽'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동북아에도 화해와 협력, 통합의 질서가 구축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혹독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확고합니다. 앞선 정보화 수준 또한 투명한 정치와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17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프랑스와 한국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국 의회간의 더욱 활발한 교류와 여러분의 건승, 그리고 프랑스의 큰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